

“올 가을 광주서 역대급 문화예술 축제 이어진다”

광주문화재단 하반기 주요행사 공개

거리 곳곳 축제 ‘프린지페스티벌’ 호남 미술시장 ‘아트광주’ 재주관 ‘광주공원’ 청년문화 중심지 탄생

취임 100일을 맞이한 노회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의 지난 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 하반기 굵직한 문화예술축제 일정을 공개했다. 가을 예술축제·이벤트를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G-페스타 광주’의 시즌1 ‘조이풀(Joyful) 광주(9월 25일~10월 6일)’에 맞춰 관람객들이 광주에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축제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광주문화재단의 하반기 주요사업인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아



트광주24, 청춘문화누리터를 소개한다.

●거리공연 펼쳐지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제9회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어쩌다 마주친...’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거리예술이 준비돼 있다. 특히 ‘거리예술축제’와 ‘스트릿댄스축제’ 등 두 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거리예술축제는 9월 21일과 22일 광주비엔날레, 금남로 일대에서 △스트릿댄스 축제는 9월 28일과 29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거리예술축제에서 선보여질 제작공연 ‘아스팔트 블루스’가 눈길을 끈다. 예술인과 시민배우, 시민풍물단 등 지역민 2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동형 공연이다. 시민들이 대형바퀴로 표현되는 일상의 통제에 대항하다가 해방의 순간에 금남로가 모두를 위한 만남의 광장으로 탈바꿈되는 과정을 극적으로 담는다. 이외에도 해외초청작으로 스페인 단체 ‘올웨이즈 드링킹 마칭밴드’의 이동형 음악공연 ‘거리는 우리의 것(40분)’, 홍콩 거리예술가 ‘라이 이’의 서커스 공연 ‘흐름(40분)’ 등을 선보인다.

스트릿댄스축제에서는 스트릿댄스배틀과 퍼포먼스 공연 프로그램 ‘프린지리코’가 기대를 모은다. 스트릿댄스 배틀은 현장 무대에서 DJ의 선곡에 맞춰 즉흥 댄스를 추는 방식으로 전국 고등학교 학생 대상 ‘청소년부’와 대학생 및 일반 댄서 대상 ‘대학생부’ 등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퍼포먼스 공연은 참가팀이 자신들의 콘셉트에 맞게 연습한 댄스공연을 무대에서 선보이는 방식이다. 퍼포먼스 공연은 청소년부만 현장에서 예선 및 본선을 열고 대학과 일반부는 영상으로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팀만 무대에 설 수 있다.

●아트광주24 팜파르

광주 아트페어 ‘아트광주24’는 ‘함께하는 미술시장, 사랑받는 미술축제’라

는 주제로 오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이어 올해 12년 만에 다시 아트광주를 주관한다. 올해 아트페어는 미국·프랑스·독일 등 10개국 105여 개의 국내외 갤러리 부스와 8개 특별전 부스 등 총 113개 부스를 운영한다.

아트광주24의 운영 포인트는 △미술품 판매와 유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롭게 선보이는 상설 프로그램 ‘아트마켓’ △오늘날 미술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블루칩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명품 컬렉션 ‘프로포즈展’ △뛰어난 젊은 예술가의 발굴 가능성을 확장하는 청년작가발굴 ‘라이징스타展’ 등이다. 아트페어 기간 동안에는 미술사 전문가가 초빙 강연 프로그램 ‘널 위한 문화예술’, 페어 투어 ‘도슨트 프로그램’, VIP컬렉터를 위한 ‘프라이빗 컬렉터스 공간’ 등이 진행된다.

사전 불입을 위한 상설 ‘아트마켓’은 미술품 전시·판매와 문화강좌를 연계해 총 8회에 걸쳐 진행 중이다. 6~7월에 4회 운영됐고, 8~9월 4회에 걸쳐 예술의 거리 내 갤러리와 대인예술시장에서 열린다. 문화강좌 프로그램은 무료이고,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와 구글 폼을 통해 사전 등록 후 참여 가능하다. 출품된 작품들은 오는 12월 말까지 통합 홍보플랫폼인 ‘디아마이광주’ 아트스토어에서 다시 구매할 수 있다.

●광주공원 일대 ‘청춘문화누리터’

광주문화재단 주변 광주공원 일대에서 ‘청춘문화누리터’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광주포차 거리는 그대로 두되, 청년 중심으로 주말마다 스트릿댄스·디제잉·힙합·전통타악 공연을 연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이은지(빛고을댄서스 공동대표), 홍성만(프리랜서 디제잉), 김다혜(클럽 심해 대표), 서지원(전통타악그룹 얼썬단원), 권선제(인디밴드 투파이브 리더), 김지은(스카이

코드 대표) 등 6명의 청년들을 모아 ‘청춘문화기획단’을 기획했다.

청춘문화기획단은 오는 10월 ‘주말은 청춘’이라는 타이틀과 ‘주말 끝에 낙이 온다’는 슬로건으로 청춘문화누리터를 운영한다. △10월 5~6일 스트릿댄스 ‘연결’, 디제잉 ‘공감’ △10월12~13일 힙합 ‘불꽃’, 코스트플레이 ‘이상’ △10월 19일~20일 전통타악 ‘울림’ 등 10월 한 달 동안 매주 주말에 6개 장르의 다채로운 무대가 광주공원 일대 가설무대에서 진행된다.

노회용 대표이사는 “올해 하반기 광주가 실질적인 문화도시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광주의 문화예술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국립남도국악원은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오는 21일부터 해외동포 및 국악단체 초청 공연을 연다.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국립남도국악원 ‘한국을 가슴에 품다’ 공연

개원 20주년 해외동포 등 초청

국립남도국악원은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해외동포 및 국악단체 초청공연 ‘한국을 가슴에 품다’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국립국악원(서울) 우면당을 시작으로, 24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진도) 진악당, 28일 오후 7시30분 국립부산국악원(부산) 예지당까지, 대장정이 이어진다.

개원 2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된 이번 공연에는 국립남도국악원이 200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해외동포 및 국악단체 초청 연수’에 참가했던 85개 단체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5개 단체가 무대에 오른다.

무대에서는 단체는 미국 뉴욕한국공연예술센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운무용단, 러시아 모스크바 전통소리 맥, 헝가리 부다페스트 민들레, 에스토니아 탈린 아리랑무용단 등 총 34명에 이른다. 공연은 모든 출연자가 함께하는 ‘여는굿’을 시작으로 ‘부채춤’, ‘사물놀이’, ‘매향무’, ‘소고춤’, ‘판굿과 소고’ 등이 이어진다.

한편 2006년부터 지금까지 국립남도국악원의 ‘해외동포 및 국악단체 초청 연수’에는 19개국, 85개 단체, 2198명이 참가했다.

도선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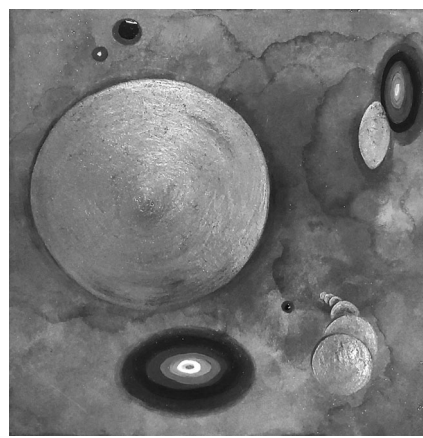
어둠 속 빛 발하는 윤세영 개인전 ‘생성지점’

18일까지 예술공간 집

윤세영 작가의 열두 번째 개인전 ‘생성지점_이 곳과 저 곳(Becoming Space_ The world and the universe)’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갤러리 예술공간 집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중력과 리듬에 대한 새로운 생성지점 표현한 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 낯설고 푸른 어둠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빛을 통해 시간의 양면성을 표현하고 평면회화와 설치를 통해 시각적 유희를 준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윤세영 작가는 한국화를 전공했다. 윤 작가는 주로 ‘석채(미세한 돌가루)’라는 한국화 재료를 사용하는데, 이는 원하는 색감을 보여주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오랜 시간 쌓아 올려야만 색이 발현되고, 원하는 표현이 되기까지 많은 인고의 시간을 기다



윤세영 작 ‘생성지점’. 예술공간 집 제공

려야 한다. 이번 전시에 걸린 신작들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긴 시간 매진해 온 작품들이다.

윤세영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중력과 리듬에 대한 새로운 생성지점을 표현하고자 한다”며 “소리의 오르내림은 그들만의 색으로 파장을 만든다. 중력이 존재

하지 않는 진공 상태의 몽롱한 세계. 엇과 정의 어긋남이 조화롭게 박자를 맞추는 놀라운 리듬의 세계. 두근거리는 내 심장 박동이 빛을 움직여 새로운 생성지점 ‘Becoming Space’을 만들어 낸다”고 설명했다.

두 차례 ‘작가와 대화’도 예정돼 있다. 윤 작가는 오는 10일 오후 4시, 13일 오후 7시에 관람객들과 만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윤세영 작가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서울·광주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9년 독일 뮌헨 Villa Waldberta 국제 레지던시, 2018년 광주시립미술관 국제 레지던시 작가로 참여했다. 주요 경력으로 광주비엔날레 본전시 참여, 하정웅 청년작가상, 제22회 광주 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이번 전시는 예술공간 집에서 열리며, 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이뤄진다.

도선인 기자

ACC, 수험생 응원 댓글 간식 이벤트

내달 25일까지 전국 고교 대상

수험생, 가족, 동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수능 응원전’이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D-100’을 맞아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4 ACC 우리 학교 수능 응원

전’ 이벤트를 오는 9월 25일까지 50일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ACC 누리집(www.acc.go.kr)에 고3 수험생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면 가장 많은 응원을 받은 학교를 선정해 간식과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다. 지난해에는 광주서석고, 광주정광고, 화순능주고, 평택한광고, 남원서진여

고 등 5개 학교의 학교가 선정돼 응원 간식과 선물을 받았다.

참여 방법은 ACC 누리집에서 회원 로그인 후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해 수험생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면 된다. 이벤트에는 고3 수험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픈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응모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이 주어진다. 당첨 학교는 오는 10월 1일 ACC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도선인 기자